위드코로나 시대, 여수 관광 멈춤 없다

시·관광협의회 심포지엄 개최…방역 협조 속 관광 재도약 다짐

한해 1300만명이 다녀간 여수시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멈춤 없는 관광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여수시와 여수시관광협의회는 지난 6일 여수문화홀에서 관광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여수시관광협의회 회원과 관광전문가, 공무원 등 90여명이 모여 관광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지난해 9월 사랑방 좌담회에서 건의된 이후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여수시 관광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발전 방안과 돌파구 모색을 위한 고민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위드코로나, 지속가능한 여수 관광 발전방안'을 주제로 전남대학교 김준호 교수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여수시위생단체협의회 이부규 회장이 '맛과 친절로 만든 명품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한영대학교 박선흡 교수는 '남도 음식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목표대학교 김효진 교수를 좌장으로 여수의 관광 발전과 장기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했다.

이순미 여수시관광협의회 회장은 "심포지엄이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먼 미래세대에게도 활용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면서 "협의회는 여수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 여수시의 관광 재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관광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관광 협의회 및 관광업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서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 확보

지천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등

구례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

구례군은 주민숙원사업인 지산정 정비사업 7억원과 지천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산정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궁도 시설을 보수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적정규격의 사대를 확보하고, 동호인들의 이용 편의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광의면 지천리에 위치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비로 부담할 재원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재정을 절감하고, 호안정비 및 안전 기준에 미달된 구조물을 개선해 호우피해 방지 등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 추진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군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확보된 재원을 통해 군의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농기계 임대료 '반값' 연장합니다"

내년 6월까지 82종 540대

고흥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흥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풍양면)와 북부지소(과역면)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82종 540대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 농기계임대사업소.

광양시, 식품접객업 위생등급제 94곳 지정

상수도 요금·쓰레기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광양시가 기존 위생등급제를 받은 40개 업소와 2021년 신규 위생컨설팅 심사를 거친 54개 업소를 포함한 총 94개소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는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외식업소 간 자율경쟁을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소는 식약처에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본분야, 일반분야 등의 현장평가를 거쳐 엄격한 기준을 통해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등 3가지 등급을 부여한다.

94개소에 대한 위생등급제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업소 현황과 사진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변낙현 광양시 식품위생과장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분위기 조성과 위생등급제 정착을 위해 더 많은 음식점이 신청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년 2월 착공

보성리에 연면적 1만5777㎡ 규모 410억 투입
의회동·여가시설동·어울림광장·소공원 등 구성

보성 군민의 여가문화에 새바람을 불러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르면 내년 2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 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보성읍 보성리 824-6일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5777㎡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2월 착공해 2024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지하 1, 2층에는 차량 200여대의 주차공간과 기계·전기실이 마련되며, 지상은 의회동과 복합 여가시설동, 어울림광장, 소공원, 30여대의 주차 공간 등이 들어선다.

건축물은 의회동(3개 층)과 복합 여가 시설동(6개 층)으로 나누어 2개 동으로 세워지며 2개의 건물이 3층에서 하늘마루를 통해 연결되는 형태로 구상됐다.

의회동 1층은 의회 본회의장과 상설전시실, 2층은 의원실 등 보성군의회 시설, 3층은 드림스타트센터가 자리를 잡는다.

복합 여가 시설동 1층에는 로비와 연계한 작은도서관, 2층은 키즈카페와 공동육아공간을 갖춘 가족센터와 공유부엌, 3층은 마루공간과 동아리실, 4층은 시청각실·교육장·회의실·사무실 등의 업무시설, 5층은 롤러장과 VR체육시설, 6층은 14레인 규모의 볼링장, 옥상층에는 테마공원이 마련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단절된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자 부지 내 다채로운 광장과 소공원을 조성해 지역축제와 다양한 야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시설 중 볼링장과 롤러장, VR체육시설은 지난 2월 군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설로 군민 여가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순천시 쓰레기봉투 가격 내년 30% 인상

20ℓ 440원→580원…100ℓ 봉투 판매 중단도

순천시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20ℓ를 기준으로 현 440원에서 580원으로 30% 인상한다. 종량제봉투의 글자색상도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다. 기존 봉투는 내년 3월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폐기물도 배출품목을 134개에서 193개로 세분화해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도 중단한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 예방,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리터 봉투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다.

순천시는 서민 경제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2015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해왔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으로 시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난 7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